

출판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무장해 자신만의 '꿈'을 펼쳐보려는 출판인들은 끝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출판저널>은 출판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출사표를 내민 새내기 출판인들의 목소리를 담으며 우리 출판문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 새내기 출판사들의 출사표!

## 허원미디어

아름다운 꿈을 가꾸는 출판사



신영미대표

“사람들이 책에서 잘 사는 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낙천적인 성격이 장점이자 단점이라 말하는 허원미디어 신영미 대표. 그 자신이 책을 통해 인생을 배웠기 때문일까. 누구든 책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20여

년간 사회과학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고된(?) 교정 작업마저 '세상을 배우는 즐거운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책이 좋고 책 만드는 일이 즐거웠으니 출판사 경영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출판사의 주간으로 재직할 때 신 대표는 역자로 참여한 몇몇 여의사 선생님들과 삶의 이모작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합했다. 모두 어느덧 중년을 건너내는 인생의 동지들이었고,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할 때였다. 세상의 동년배들과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실버세대'를 위한 출판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

첫 결과물은 《은퇴 없는 삶을 위한 전략》이란 책. 원제는 '장수전략'이었지만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쏟아져 '은퇴'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제목을 붙였다. 주된 내용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31가지 방법이다. 출간 이후 노후를 대비하는 40대 후반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 책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수기 수상집인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이다. 자원봉사에 나선 10대 청소년들의 경험담에는 힘들고 고된 노동의 현장과 이웃을 돌아보는 젊은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책이 나오자 제목만 본 연령 높은 독자들은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는가”라고 묻곤 했다. 그럴 때 마다 신 대표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 벅차게 밀고 오는데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허원미디어는 한자로 빌 허(虛), 둥글 원(圓)을 사용한다. 신 대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기에 족하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원이 되고 싶은 바람으로 지었다”고 뜻을 풀이를 한다.

허원미디어의 기획위원들은 모두 의사다. 우리말에 관심이 많아 의학, 과학, 그리고 문학을 아우르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텍스트를 선호한다. 그래서인지 신대표는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장르파괴 서적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서점에서는 소설, 비소설, 처세 등의 도서 분류를 고수하고 있지만 '퓨전'이라 할 수 있는 통합 장르가 서서히 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주목한다. 허원미디어도 폭넓은 사고를 유도하는 책을 내고 싶은 바람이다.

“나이가 들면서 내 세대의 친구들을 위한 인생 컨설팅을 하고 싶습니다. 방법과 도구는 책이 되는 거구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참 열심히 살아왔지요. 치열함을 안고, 그리고 책을 읽었던 세대라는 것이 매력이구요. 허원미디어가 '아름다움과 미덕'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메신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취재\_ 송보경 기자

## 지혜로

출판시장의 자존심인 인문사회 분야의  
양서들을 꾸준히 소개하고



김경수대표

“원래는 ‘위즈로드 북스(wizroad books)’라고 지었다가 한글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용했습니다. 저희가 출간하는 도서들이 독자들을 지혜와 꿈으로 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로’라는 출판사 이름의 내력에 대해 설명하는 김경수 대표는 원래 대

학과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한 역사학도였다. 역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그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2,000만 불 수출탑까지 수상한 인쇄업계의 대표적 업체인 팩컴코리아(주)와 성인문화사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인쇄업계에 입문했고, 또 성공을 거두었지만 꿈을 접는 데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았다고 한다.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은 김 대표를 출판 사업에 눈 돌리게 했다. 양질의 인문사회 도서를 출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출판문화에 이바지하고자 결심한 것. 인쇄업계에서 오래 동안 축적된 인적, 물적 인프라도 그의 이런 결심에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다.

지난 6월 출간된 《독일여성운동사》는 지혜로가 출간한 첫 책이다. 전문적인 학술서이니만큼 《독일여성운동사》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반응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 대표는 《독일여성운동사》가 대중성은 높지 않은 대신 독자들이 꾸준히 찾는 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도서 구입에 쓰이는 돈이 국민 평균 월 만 원이라는 기사에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뉴 미디어의 영상 시대라지만 책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는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고, 인격을 완성하는 책의 가치를 좀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의 책 사랑은 단지 책에 대한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판계의 현실 전반에 대한 염려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출판계에 대해 “자본의 대결 양상이 모든 산업 분야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출판업은 자본만의 문제로 끝낼 수 없는, 문화 사업의 모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더불어 출판계에서의 성공은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꾸준히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한다. 김 대표.

“지혜로는 대한민국 출판 시장의 자존심인 인문사회 분야의 양서들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것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동, 서양의 고전들을 문고본 시리즈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취재\_이주연 기자

## 가쎄

책 출간할 때마다 전시회 열어

가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열망 담아



김남지대표

책을 출간할 때면 언제나 책과 함께 미술작품 혹은 사진 전시회를 여는 출판사가 있다. 가쎄(Gasse), 독일어로 ‘도시의 오솔길’이라는 뜻을 가진 출판사이다. 독일에서 오래 동안 살면서 공부하고 귀국한 김남지 대표가 지난해 10월 새롭게 시작한 출판사가 바로 가쎄이다. 출판사

와 함께 자그마한 갤러리도 운영하는데, 갤러리의 이름도 가쎄이다. 가쎄는 한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아름다울 가(佳)에 세상 세(世)를 조합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는 김 대표의 바람도 담고 있다.

김남지 대표가 출판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자연스럽게”이다. 17년 동안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하루 한 편씩 써놓았던 글들을 모아 수필집으로 엮어 아버지 칠순 선물 겸 귀국 선물로 드린 것이 시작인 셈이다. 김 대표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독일 생활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서 “그때부터 출판세계를 ‘살짝’ 엿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학부에서 성악을, 독일로 유학 가서는 교

회음악을 전공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동안 수집한 미술작품들을 가지고 갤러리를 열었다. 국제아트페어 등에 참석하면서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팸플릿이나 도록들이 작가들의 마음과는 달리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든가 아니면 낙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작가들의 마음을 담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제가 좋아하는 미술세계와 표현하고픈 마음의 글들이 작가와 관객, 혹은 작가와 독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주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세이와 사진집을 발간했지만, 가세는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책들을 출간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우리 현실에서, 지금까지는 의료와 복지 차원에서 노인 문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세는 노인 세대가 문화적인 자유와 낭만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김남지 대표는 “가능성만 가지고 출발하는 많은 출판사들, 단지 머리와 가슴으로 시작하는 작은 출판사들이 독자들과의 마음과 감성을 살피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 부탁한다”는 바람을 잊지 않았다.

취재 정동석 기자

은 출판기획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에 통신원을 두고 현지의 출판현황을 리포트하고, 전문 잡지 등에서 출판의 기획소스를 제공하는 매체를 만들고, 기획회사 식의 독립기획물을 출판사에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었다. 이에 편집자나 마케터들이 적극 찬동해주었지만, 다른 출판사 사장들의 반응은 달랐다.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럴 바에야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승부를 보는 게 낫다는 조언들이 많았다. 그래서 출판사로 방향을 선회하여 올 1월에 ‘로드페이퍼’를 오픈 했다.

페이퍼로드는 경제경영서와 인문역사서를 두 축으로 해서 도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발행한 책이 올해 7월에 나온 《CEO의 습관》인데, 반응이 좋다고 한다.

“3천부를 찍었는데 열흘 만에 2쇄를 찍었어요. 지방에서도 도서주문 연락이 많이 오고 반응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꾸준합니다.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갈 책이라는 감이 와요.”

페이퍼로드에는 영업을 담당하는 박종명 씨와 편집 디자인을 담당하는 백진숙 씨가 페이퍼로드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력자이다. 최 사장은 월간〈사회평론 길〉기자, 더난출판사 기획팀장, 예담 및 위즈덤하우스에서 기획위원, 월간〈중앙〉및〈역사탐험〉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월간〈중앙〉에 ‘역사인물가상인터뷰’를 연재하면서 작가 생활을 한 결실로, 《13인의 변명 - 역사인물가상인터뷰》(청년사)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랜덤하우스중앙, 32쇄 발행) 《하룻밤에 읽는 고려사》(랜덤하우스중앙) 등을 출간했다. 출판기획자로서는 《한국의 부자들》(위즈덤하우스) 《1인자를 만든 참모들》(위즈덤하우스) 《한국의 이너씨클》(중심) 등을 독립 기획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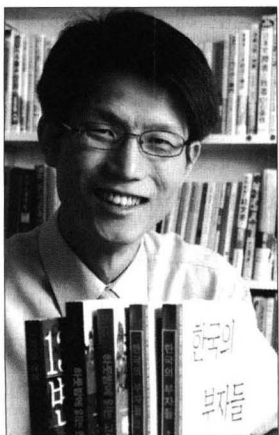
최 사장은 “발행인으로서 기획에서 편집, 제작, 영업까지 관여해보니 책이 내 자식이란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5년은 버틸 각오가 돼있단다. 자리를 잡게 되면 한국의 ‘강담사’나 ‘소학관’과 같은 회사로 페이퍼로드를 키우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최 사장은 “출판은 공급자인 출판사들이 노력할 부분이 더 많다”고 지적하면서, “페이퍼로드는 좋은 필자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독자들이 만족할 책을 양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시사저널 안희태 기자)

취재 정윤희 기자

## 페이퍼로드

경제경영서와 인문역사서에 주목

《CEO의 습관》출간한 지 한달 만에 2쇄 찍어



최용범 대표

종이의 길이 문명 전파의 길이 됐듯, 책이란 울드 미디어가 갈 길은 아직도 오래 남아 있다는 의미를 지닌 ‘페이퍼로드’. 위즈덤하우스와 예담출판사 사장이 제안한 것이라 한다. 마침 예담에 진순신의 저서 《페이퍼로드》가 발행된 시기였다.

최용범(39) 사장은 기획자와 저자로서 출판에 10년간 몸담아 왔다. 당초 계획